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강석*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6. 8. 7(일) ~ 8. 27(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49th ave에 위치, Langara역 근처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좋다. 학생을 위한 시설들이 잘 되어있는편.
수업	수업은 여러가지를 다루지만 주로 말하고 듣기 활동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을 배우고 서로 연습하는 활동을 많이 하며 발표 준비 및 발표도 한다. 약 18명씩 5개반으로 분반되며 과제는 거의 없거나 짧은 시간내에 간단히 할 수 있는게 대부분이다. 준비물은 필기도구와 교재만 준비해가면 된다.
Activity	1.KAYAK: 말 그대로 카약을 탐. 활동 중 옷이 많이 젖는것은 아니나 만일을 대비해 우비와 작은 수건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모자와 선크림도 준비할 것. 2.아쿠아리움: 딱히 준비할 건 없음. 아쿠아리움 활동 과제를 할 때 자신이 찍은 것의 이름을 확인할 것. 아쿠아리움이 스텐리 파크 안에 위치해 있는 만큼 활동 후 스텐리 파크와 잉글리시 베이를 가기에 용이하니 이에 대한 미리 계획을 세울 것. 3. MOV: 특이사항 없음. 4. whisler trip. 산 위로 올라가면 추울 수 있으니 긴바지와 얇은 외투를 입을 것.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여름 기준으로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와 온도. 비는 3주동안 있으면서 하루밖에 오지 않았으나 비가 좀 내리는 편이라 하니 우산도 준비할 것. 여름옷과 얇은 긴 옷을 준비하면 된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치안은 좋은 편. 다만 밤에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곳이 많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독방을 제공받으며 많은 것들을 혼자서 해결하는편.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시리얼 혹은 빵, 점심은 샌드위치다. 3주내내 점심으로 샌드위치만 먹는것이 불편하다면 홈스테이 가족에게 정중히 말하면 된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홈스테이 집의 위치에 따라 크게 차이난다. 랑가라 켈리지가 랑가라 역 근처에 위치해있는만큼 교통은 좋은 편 다만 대부분 버스로 등,하교한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711,2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200,000	모든 마신것, 먹은 것 포함
쇼핑	150,000	개인차가 있음
심카드	50000	
기타	50000	각종 입장료 등
교통비	3500	무제한 교통카드 학교서 제공
합계	453,500	실제 390달러 소비함.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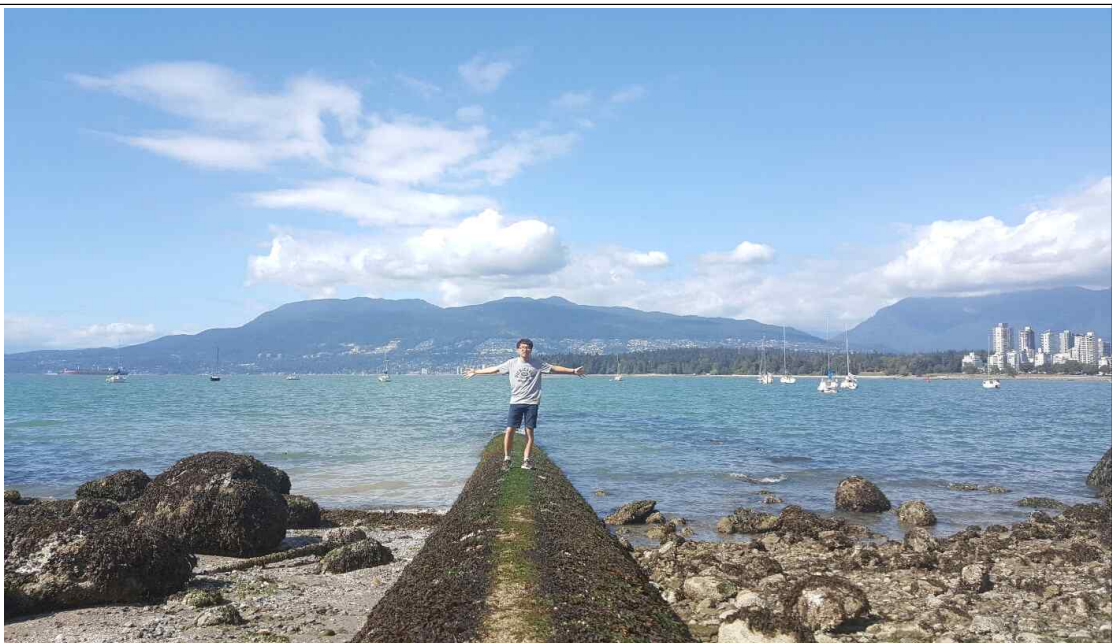
일단 여름옷과 1~2벌의 얇은 긴 옷을 준비할 것. 오래 걸을 수 있는 운동화와 슬리퍼는 거의 필수. 개인적으로 칫솔을 제외한 세면도구와 수건은 모두 제공해주었다. 컵라면 몇 개를 준비하는것도 좋다. 만일을 대비하여 해외 결제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선물을 들고오면 짐이 늘어나니 이를 감안하여 짐을 쌀 것. 장시간 비행이다보니 제일 아쉬운 것은 목베개. 2달러까지가 동전으로 되어있고 동전이 여러종류이다보니 동전지갑이 있는 것이 좋다. 귀국시 동전은 환전이 거의 불가능하니 동전은 다 쓰고, 남았다면 비행기에서 기부하는것이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솔직히 3주간의 짧은 시간에 영어실력이 늘기는 힘들다. 하지만 외국인 친구들, 현지인들과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해볼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여행에서도 쉽게 접해보지 못할 캐나다의 문화에 대해서도 홈스테이에서 생활하면서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캐나다에 처음 도착했을때 3주가 길 것 같았지만 막상 돌아오는날에 생각해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것 같았고 3주가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다.

일단 3주밖에 있지 못하다보니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외박이 안되는 관계로 당일치기가 힘든 빅토리아 아일랜드와 미국의 시애틀을 가지 못해본게 가장 아쉬웠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해변에서



캐필라노 서스펜션 파크